

언론인 출신...광산구청장 이어 재선 국회의원까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후보는

靑비서관·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역임
기후대응 입법·국보법 폐지안 발의
2021년 이재명 지지하며 '친명'으로

1961년 해남군 마산면에서 태어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언론과 학계를 거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해남마산초, 해남중, 목포고를 거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쌓았다.

대학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목격한 경험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의식을 키웠다.

1988년 전남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2000년까지 지역 현장을 취재했고 노조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또한 참여자치21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과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관리 행정관과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맡아 국정 경험을 쌓았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광산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구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부구청장·동장 직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자치행정 모델을 제시, 주목받았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출신)이 이달 1일 강진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현창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 측 제공>

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설립,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을 총괄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본선에서 84.0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24년 22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대표단 정부부대표, 인사청문TF 단장 등을 역임했고 정치검찰 사건조사 특별대책단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의정활동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과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적 행보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지방 행정과 중앙 정치를 두루 경험하는 등 지역 기반과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은진기자

민형배 후보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민형배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제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뜻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멋진 경쟁을 펼쳐주시길 김영록 후보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 밝는다는 기회도시 광주'를 그려오신 강기정 후보님의 추진력, 농정 철학과 전문성을 보여주시신 신정훈 후보님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현장과 제도를 모두 꿰뚫고 계신 주철현 후보님의 지혜와 청년의 패기로 젊은 정치를 일깨워준 정준호 후보님의 기개 또한 모두 전남광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해 모두와 손 맞잡고 함께 걷고 싶습니다. 더 크게 통합하고, 더 깊게 연대하겠습니다.

저민형배는 약속대로 '전남광주 시민주권 정부'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침체된 산업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활기찬 전남광주 꼭 일구겠습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차별 없이 성장의 열매를 누리는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권을 다시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특별시민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책임, 끝까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필

- ▲해남(65) ▲목포고 ▲전남대 사회학과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사회정책·자치발전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

“지역 대전환...전남광주 신성장 시대 완성”

민형배 후보공약은

성장통합 등 5대 비전 32개 발표
전기요금 100원...AI 반도체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출신)의 공약은 산업·교통·복지·환경·자치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대전환 구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를 '신성장 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비전으로 성장통합, 균형발

전,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하고 3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으로는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내걸었다. 시민의 행정 참여를 제도화해 시민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성장통합 분야는 전남·광주를 '신성장 특별시'로 만들고 300조원 규모 기업 투자유치, 100만 인구 유입을 이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남·광주에 글로벌 초첨단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우주, 에너지, 농생명 특화 인제 체계

적 양성, AI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로 서부권은 해상 풍력과 에너지, 중부권은 우주와 농생명, 동부권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광주권은 AI·미래모빌리티를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균형발전 분야는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또한 '10·30·60 교통 대전환'을 통해 광역 BRT와 복합환승 거점으로 60분 생활권 실현을 약속했다. 임기 내 광역 BRT 중심 교통 혁신을 통해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광주송정·순천·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기본소득 분야의 경우 영암·해남에 3GW 농어민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을 만들고 농어촌 마을 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영암·해남지역 연계지구, 유희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 받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햇빛, 바람, 바다, 농수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마을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지역 자산 배당 경제' 모델을 만들어 농어촌을 기본소득 경제 중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완성하고 목포를 서남권 관문도시

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부지와 송정권 미래도시 구상을 제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문화수도' 비전을 발표했다.

영산강 300리를 나무와 습지, 정원으로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민주권 분야에서는 전남·광주 300개 읍·면·동 마을자치와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전국 선도모델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디지털 활동이 시민의 자산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전남·광주를 세계 3대 사회연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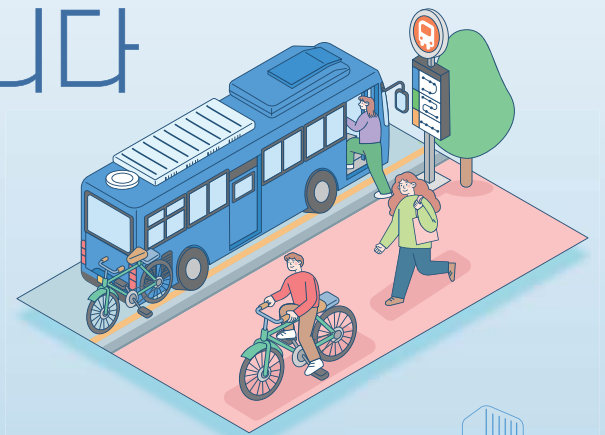
민형배 후보는 "산업으로 하나 되는 전남·광주, 미래형 일자리가 넘치는 젊은 도시,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녹색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민이 행복한 특별시를 만들 것"이라며 "전남·광주 신성장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인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